

亂氣流時代의 電力事業과 電氣人の役割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n the
Difficult Times and the Role of the
Persons Engaged in Electricity Business

安秉華

韓國電力公社 社長

本稿는 '89년도 大韓電氣學會 定期總會 ('89. 11. 25)에서 행한 本協會 安秉華 會長의 特別講演 優지이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로 어려운 狀況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電力事業 現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런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認識과 協調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電力事業이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여러분의 理解를 둡고자 먼저 電力事業의 特性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電力事業은 누구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公益事業입니다.

電力事業의 公益性은 電氣가 現代 文明生活에 필수적인 公益財라는 측면과 막대한 投資가 필요한 設備產業으로 傳統的으로 獨점성이 인정되는 事業으로서 그 활동에 公共의 規制가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面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표현

입니다. 따라서 企業活動의 目標가 公益性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때때로 政府의 政策事業과 같은 公共費用을 부담하는 企業이란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電力事業은 主導的인 에너지 事業이라는 점입니다.

電氣는 우리 經濟活動과 生活에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 源인 동시에 電氣는 一次 에너지로부터 전환된 二次 에너지이므로 電力事業은 에너지 供給事業인 동시에 막대한 一次 에너지를 消費하는 에너지 消費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도 國家全体 1次 에너지의 1/4 이상을 消費하는 企業으로서 國家全体의 에너지需給上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 아니라 國家 에너지 安定供給에 주도적인 役割을 담당해야 하는 責務를 갖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地域社會와 밀착된 設備產業이라는 점입니다.

전기는 生產과 同시에 消費되며, 저장이 불가능하고, 生產設備에서부터 最終消費地까지 연결된 單一系統에 의하여 생산, 공급되는 設備產業입니다.

그러므로 電力生產 및 流通, 供給에 따르는 설비가 國民의 生活空間에 불가피하게 함께 設置되게 됩니다. 따라서 電力產業은 地域社會와 밀착하여 相互理解해 나가야 하는 特性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特性을 보건데, 한마디로 電力事業은 國民속에서, 國民을 위하여, 國民의 뜻에 맞게 遂行되어야 하는 國民的 事業이라고 하겠습니다.

韓國電力은 지금까지 本然의 임무를 충실히遂行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國家經濟發展에 선도적 역할을 自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여러 與件의 變化와 새로운 상황의 展開는 우리에게 向後 電力事業의 經營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울 것임을 豫告하고 있습니다.

社會構造가 복잡해지고 高度情報化 社會로 移行되어감에 따라 電氣依存度가 커지면서 電力事業者의 책무도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國民들이 電力事業者에게 바라는 수준도 최근의 社會雰圍氣와 함께 빠르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欲求의 수준이 상승함은 물론, 더 나은 서비스와 더 값싼 電氣 등 欲求間의 葛藤이 深化되고, 국민 전체와 일부 階層間 또는 地域間의 욕구가 첨예하게 마주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어 電力事業者가 해쳐나가야 할 與件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의 經濟成長에 따라 급증하는 電力需要는 불과 수년전까지 指彈의 대상이었던 發電設備 過多保有 상태가 이제 90年代 초반에는 오히려 電力不足 事態를 우려해야 할

상태로 反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發電設備 과다보유 상황에서 무리한 計劃이라는 비난을 들어가면서도 推進해 온 電源開發事業이 이제는 電力의 安定供給을 위하여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所要되는 막대한 投資財源의 확보가 우리에게는 90年代 초반에 解決해야 할 가장 어려운 課題입니다.

뿐만 아니라, 設備投資는 最少化하되 良質의 電力供給으로, 높아진 國民欲求에 부응하기 위하여 設備運營 效率性을 높여야 하는 등 電力會社의 經營은 어느 때보다 어려워질 展望입니다.

雪上加霜으로 우리 회사가 처한 對外環境은 電力事業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公益企業으로 國民의 信賴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 왔고, 또한 國民의 信賴를 받고 있다고 自負하고 있었습니지만, 近間 輿論의 비판과 各種監查 등에서 단편적으로 제기된 問題들의 왜곡된 해석,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부 不祥事 등으로 우리 韓電에 대한 信賴에 많은 損傷이 있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國民속에서 國民을 위하여 國民의 뜻에 맞게 遂行되어야 하는 電力事業을 經營하는 입장에서, 더구나 國民欲求의 葛藤과 對立을 조정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國民의 信賴低下는 電力事業의 원활한 수행을 해나가는 데 커다란 打擊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 에너지 政策遂行에 주도적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 電力事業者로서 近來에 擴散되고 있는 反核運動은 資源貧國인 우리나라로서 유연한 火力과 함께 앞으로의 電源開發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계속 차지하게 될 原子力發電所의 建設과 運營에 막대한 支障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現在 우리나라의 反核運動은 일반국민을 적극

적인 反原電 同調勢力으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직접적 理解關係가 걸린 原子力發電所 또는 原子力 관련시설입지 周邊地域 주민들의 無分別한 反對를 부추겨 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계속 推進할 수 밖에 없는 原子力發電所의 建設과 運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原電 反對運動과 더불어 또 하나 電力事業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電力設備의 立地確保問題입니다.

특히, 發電所 建設敷地의 경우 협소한 國土에 제한적인 立地條件으로 적합한 후보지도 많지 않은 데다가, 國土開發計劃上 다른 用途와의 相衝과 地域住民들의 높아진 權利意識에 따른 用地買入의 어려움 때문에 갈수록 立地確保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大都市의 電力安定供給을 위한 도심지의 電變所建設 敷地確保도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對內外的으로 이렇게 어려운 逆境속에서도 우리 韓電은 電力事業의 원활한 추진을 한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推進中인 電源開發事業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90年代 초반에 電力需給이 不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비하여 短期電力需給 安定對策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는 電源開發 투자비의 원활한 調達을 위하여 經營의 自律性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經營의 能率性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건전한 財務構造를 유지하는 한편, 設備運營의 效率을極大化하고 原價節減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景氣浮揚策중의 하나로 論議된 바 있는 電氣料金引下 문제는 앞으로 늘어날 電源開發資金 調達을 생각할 때, 短期의인 電氣料金

引下 財源을 内部에 留保함으로써 電氣料金의 보다 長期의인 安定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電力施設 확충에 필수적인 用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國家 全体의 利益을 위해 일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地域社會의 不利益은, 다른 方途로 보상함으로써 地域社會와 共存共榮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력할 분야는 電力事業에 대한 國民의 理解와 합의를 얻기 위한 弘報活動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물론 最善의 弘報는 優實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自覺아래 철저한 自己反省과 함께 원천의 경우 安全性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確認하고, 設備運營에도 차질이 없도록 最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國民들에게 바르게 알려 國民들의 誤解와 우려를 덜어드려 바르게 評價를 받음으로써 電力事業의 理解 基盤을 넓히고, 國民의 합의를 구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민과 우리와의 원활한 對話通路를 가져 건전한 批判을 수렴하여 電力事業의 發展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電氣로서 國民에 奉仕하려는 公동의 목적을 가진 同伴者들입니다. 또한 電力事業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共同目的을 이루는데 있어서 가장 基礎的이고 중요한 事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나라들이 現在도 電力不足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려운局面에 처한 電力事業이 이 애로를 헤치고 더욱 더 發展할 수 있도록 모든 電氣人들의 슬기와 同參을 希求합니다.

우리 電氣界的 發展과 나라의 發展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倍前의 關心과 協調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健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